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0년 8월 1일 (토) 제 797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2020년 재일대한기독교회 · 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 영 철**
일본기독교단 총회회장 **이시바시 히데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2:14,16)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기독교단과 1984년에 선교협약을 체결 한 후 36년의 역사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함께 걸어 왔습니다.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적대감이라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화해와 평화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2020년 평화 메시지를 표명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계의 위협이 되고, 일본에서도 사태가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과 불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사회도 교회도 관계되는 학교나 단체도 시련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교회, 중증화가 걱정되는 고령 신도의 예배 출석의 지속을 요구 있는 등, 큰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양 교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집회와 총회의 중지·연기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큰 시련 속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1:2) 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온전한 기쁨’ 이 된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의 전국 교회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이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문제에 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사회가 위협받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의 인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과 관계 있는 특정 사업장에 대해 <일본그리스도교단>의 이름이 부당하게 사용된 외국인에 대한 증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증오심을 드러낸 문서에 의해서, 얼마나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위

로와 치유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12:18)고 하신 말씀에 따라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이를 위해 사랑에 의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찬 오늘의 상황 속에서야말로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회의 동요에 편승한 모든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게 되기를 다시금 표명합니다.

<재일 외국인 정책에 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인하여 각 교회, 학교, 시설에서도 이 상황에서의 활동에 분투하고 있는 것, 그러한 노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숙’ 을 ‘요청’ 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보장’ 을 기피하고, 약한 곳에 계속해서 더한 압박과 위기를 주고 있는 차별적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히 뿌리 깊은 차별 의식과 배타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작은 한 단편이라도 계속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선교에 있어서 기도와 지원의 연대를 환기해 가고 싶습니다.

<인종 차별 문제에 관하여>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남성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1:27)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 차별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영적인 부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하루 빨리 이 세상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행동을 같이 해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 지구를 석권하고 있는 가혹한 글로벌 경제하에 격변해 가는 사회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맞이하면서 단순히 국가 교회가 아니라 이민 배척·소수자 배제에 저항하며,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족’ (엡2:19)으로 개혁되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교회 자체가 지금부터 다음 시대로,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보냄 받으며, 쓰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니시아라이교회 김용소 목사

3월부터 주일 예배 이외의 행사를 중지하고, 성가대 찬양도 중지했습니다. 로비에 알코올 젤과 마스크를 설치하고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예배당 문을 개방,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3월 29일부터 집에 인터넷 환경도 스마트 폰 계약도 없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지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LINE 앱을 이용하여 토요일에 주보를, 또한 주일 예배 직전에 설교 동영상과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일 성경 말씀과 묵상을 위한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니시아라이교회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신도와 일본어가 모국어인 신도의 비율이 거의 50% 씩이므로 이전에는 통역 없이 두 언어를 이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6월 7일부터는 한국어 예배와 일본어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다시 모든 신도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관서지방회 와카야마제일교회 박성균 목사

와카야마 지역은 비교적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적고, 확산에 대한 대처함이 빨라서, 예배(주일, 수요일, 새벽, 교회학교)는 쉬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는 라인, 카카오톡으로 음성설교를 보내 드리고, 메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보다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때에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 어린 아이들 둔 부모 등은, 자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배 출석 인원은 약 25명입니다. 점심식사는 중지하고 있지만, 주일마다 몇 몇 신도께서 야채, 토마토, 오이등을 헌품해 주셔서, 감사하며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코로나19의 시련속에서도 신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관서지방회 오사카니시나리교회 김무사 목사

3월 이후 점심식사를 중지하고, 4월부터 주일 오후예배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예배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쉬었습니다. 4월 26일과 5월 3일 주일은 주보와 설교 원고를 신도들 각 가정에 보내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권사들 10명 정도로 주일예배를 지키며 그 이외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4월 19일 주일예배부터 예배시간을 30~40분 정도로 단축하고 설교 동시통역도 중지하고 설교는 일본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부활절 예배 후는 계속 쉬었지만 7월 말부터는 성가대원중 1,2명의 독창이나 중창 형식으로 재개했습니다. 교회학교는 학생 수는 적지만 6월부터 이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밀폐, 밀집, 밀접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4층 예배당과 5층 회의장으로 분산하고 마스크 착용과 알콜 소독을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거나 예배 결석자들에게 대한 연락이나 방문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배려하여 삼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서부지방회 코베동부교회 한승철 목사

신종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에 따라 3월 8일(주일)부터 5월 31일(주일)까지 신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속하면서 주일 오전예배는 예배규모를 축소하여 기본적으로 소인수(35명정도)로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예배와 주일학교예배는 당분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금요일저녁기도회는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자속이 아닌 자원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단 감염 대책으로서 주일예배를 주일 오전예배(50명이하), 주일 오후예배(50명이하), 2층모니터예배, 자택에서의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예배참가는 오전 예배에 참가한 신도는 오후예배는 자속하게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6월 14일(주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전 교인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중부지방회 오카자키교회 허광섭 목사

저희 오카자키교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월 8일에 제직회를 열고 2주간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주 후 3월 22일 제직회를 열어, 각 신도가 속한 지역사회나 직장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2주간 실시한 가정예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정예배가 어려운 소수의 신도들을 위해 현장예배와 가정예배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9일 제직회에서 교회의 재정상황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의 예배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예배의 라이브 방송이나 현장예배시 준수해야 할 사항등을 결정하고, 신도들 각자의 건강과 상황에 따라 현장예배와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평소의 50% 정도의 신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중에는 모든 문을 개방하고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좌석간 일정 거리두기를 의무로 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회 나가노교회 최화식 목사

3월 첫 주일부터 식사교제와 오후 모임을 중지했으며, 3월 8일 주일부터는 전교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소독을 시행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된 뒤로 4월 11일 토요일 교회 가까운 상점가에서 감염자가 생겨 12일 부활주일부터 카카오톡의 라이브톡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동안 아침기도회로부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는 중지되었고, 주일예배는 제직들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긴급사태선언이 끝난 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식사 후의 주일학교와 학생청년회 모임과 매주 전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정도 작년 대비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남지방회 고쿠라교회

주문홍목사

3월하순 부터 주일예배만 드리고 긴급사태 발령으로 부활절예배(4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자료를 발송하고 교회는 무회중 예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를 주의하면서 주일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구도자, 여행중인 손님의 모습이 안보이고, 고령자,공

공교통 이용자는 자숙이 계속되어 예배출석자는 절반정도입니다. 「새 포도주」, 「헌 가족부대」(마태복음9/17)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는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 조직성장, 무한소비 신화가 붕괴되고 자연환경 보호, 각 분야 연대와 상생을 요구하는 사회로 갈 것입니다. 외출 자숙과 빈부격차로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우울증 고독사, 자살, 가정붕괴 헤이트 스피치 등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선교/전도의 기점을 교회(당)에서 현장으로, 「불러 모으는 공동체」에서 「지역으로 확산하는 공동체」를 신중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재정은 뜻이 있는 신자의 유지헌금 제도와 외부연대 헌금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사카교회 황문석, 김혜영 장로장립 심순화 권사 취임, 명예 추대식도 거행



금년에 교회 창립99주년을 맞이한 오사카교회에서는 지난 7월12일(주일), 황문석, 김혜영 장로 장립식과 심순화 권사 취임, 김수남, 김도영 명예장로 추대, 문선희, 김영자 명예권사 추대, 김명헌, 양덕희, 양창훈, 이정행, 김성애, 박귀자, 윤중열 명예집사 추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회장 조영철목사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마16:23~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장로 장립식은 관서지방회장 임명기목사의 사식으로 서약, 안수기도, 선포가 있었고, 명예추대는 당회장 정연원목사가 선포하였

다.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의 제한과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거행되었지만 관서지방회에 속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장립받은 황문석장로는 197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0년에 독일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오사카교회의 집사로 섬겨왔다. 김혜영장로는 1955년에 故·김덕성목사의 맏내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2005년부터 오사카교회의 권사로 취임하여 섬기면서 보육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리교회 창립70주년 기념예배 거행 코로나제난가운데 하나님은혜에 감사

2020년 6월21일 오전11시, 오리교회(서남지방회)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창립70주년 기념예배가 거행되었다. 예배는 송성제명예장로의 사회와 개회기도로 시작되었고 김승희목사(서부지방회)가 사무엘상7장9~12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복음의 씨앗이 기타규슈 오리오 땅에 뿌려진 전사부터 오늘까지 6명의 담임목사와 5명의 장로가 장립되어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깊은 공훈과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다. 예배 후, 다 함께 70주년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다. 이런(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하)때에도 ‘에벤에셀’의 주님은 오리교회 성도들을 지켜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신 뜻깊은 은혜스러운 날이었다. (보고:강부자)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72ページ
-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특별기고 **코로나 재난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성실'**

김성제 목사 (일본기독교협회의회 총간사)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홍수가 지상의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창6:5). 인간사회가 추진해온 무리한 개발로 인해,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래의 숙주로 알려진 박쥐를 포함하여, 서식지가 달라 서로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서로의 범위를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 증폭되었다는 분석을 교토대학의 야마기와 슈이치 총장(영장류 연구의 세계적 권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태계를 파괴하며 추진해온 자연개발, 오늘날의 쾌적함과 편리함 그리고 끝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물질문명야말로 유해한 바이러스가 인간사회를 엄습한 근본적인 배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의 타격으로 더욱 심각해져가는 빈곤과 격차의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탐욕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기독교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로 많은 교회가 이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 종류의 집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재난의 제2, 제3파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각 교회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어 왔던 성찬식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고전12장)가 감당해야 하는 교제와 봉사의 영역에서 신앙생활과 목회 그리고 선교와 같은 사역들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교회의 이런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의 시점에서는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물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인간이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다 완성되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방주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방주를 다 만든 후에 노아가 스스로 문을 닫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창7:16). 홍수의 심판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주의 문을 닫는 권한은 노아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까지 그저 나가서 생명 곁에 함께하고 방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에 보냄 받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노아를 본받아 폐쇄적이고 닫혀진 무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누구를 초대하고 받아드릴지 인간의 기준으로 선별해서도 안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교회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감염이 피크에 도달했을 때 의료종사자들은 의료시설의 한계를 끌어안고 '트리아지 Triage' (한정된 인공호흡기를 어느 환자에서 사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생명의 선별)라는 부조리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윤리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재난이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은 '소셜 디스턴스(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의 자숙', 그리고 '3밀(밀폐, 밀집, 밀접) 피하기'였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지금도 코로나 <비상사태>이니까 신도의 건강을 지키고,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원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주장

하며 예배와 친교의 모임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책임에 성실했는지... 성경 말씀을 다시 듣고 기도하며 조용히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같은 사람을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의 이끄림을 받으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픔과 고뇌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초대하며, 환대하는 일을 주의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간증 위에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런 초심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코로나 재난이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배타적인 시기와 의심과 차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을 드리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본과 해외의 여러 사례를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미 팬데믹이 되었고 이제 인류는 국경을 넘어 서로 신뢰하고 협력 연대하며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미중 관계를 볼 때 오히려 국제사회의 배타적대립의 골은 깊어지고 국제협력과는 한층 더 멀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롬12:15) 사랑의 보살핌과 환대의 마음을 소홀히하지 않고 신앙과 목회,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왔는지 돌아봐야 할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에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작가 Albert Camus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함(honnêteté)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입니다.'

카뮈가 던진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바울서신에서만 3번 쓰여진 단어('에이리크리네이아' 고전5:8,고후1:12,2:17)와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단서로 구약성서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함(타뫼)'(개역개정 창6:9)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아는 대홍수로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천정에 있는 창문(창6:16)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전하고 성실했을까'라고 자문하며 홍수가 끝나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가져온 바이러스 감염과 사회경제적 난국이라는 거센 파도에 교회는 앞으로도 견디어나가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 현실이 언제 수습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고 지키신(히브리어 '자갈' 창8:1) 주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 하나님의 신실함(성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의 홍수의 건너 편에 있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항구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시107:28~30). (번역: 김성태목사)